



축산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농림수산부 주최, 8월 17일 농진청에서—



농축산물 완전 수입자유화에 대응키 위한 국내 축산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 그간 농림수산부가 3개월간에 걸쳐 만든 축산장기발전대책(안)을 주제로 지난 8월 17일 농진청 농업교육원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각 축종분야별 분과 토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양계분야는 제1토의장인 중소가축분과에서 양돈협회, 양육협회, 양봉협회, 축협이 함께 정부가

수립한 기본시책방향 및 대책(안)을 놓고 업계대표로 참석한 각 분야별 토론자가 분석한 의견제시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회는 황인옥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측이 제시한 축산장기발전대책안에 대한 양계업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기사 및 본지 9월호 본문 참조)

종계부화업 관리요령준수 요청
 —농림수산부 유통질서 확립위해—

농림수산부는 일부 GPS업체에서 미등록 종계장이나 부화장에 종계를 판매하고 있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계부화업관리요령에 의하면 종자용 병아리(PS)는 종계업자, 국공립기관이나 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자 및 신규로 종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단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실수요자 확인이 있어야 함)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실적을 시장, 군수를 통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검정기관의 장(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GPS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

향후 종계부화업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업계를 정화시키고, 우량한 병아리 생산공급으로 양계산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사료 양계·양돈 국제세미나
 —세계축산학회장 초청—

한국축산학회(회장 박영일)은 본회를 비롯한 양돈협회, 사료협회의 후원으로 세계축산학회장 초청 “사료양계·양돈 국제세미나”를 8월 19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축산학회 회장인 캐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교 RBlair 박사의 “육용계의 급

사증후군(Sudden Death Syndrom)에 대한 영양학적 고찰”과 세계축산학회 부회장인 한인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의 “돼지 체내에 있어 아미노산 이용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Blair 박사는 급사증후군은 사료내 곡류의 종류와 단백질 공급원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곡류공급원으로는 밀을 급여한 계군이 옥수수를 급여한 계군 보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대두박을 급여한 계군이 육분을 사용한 계군보다 급사증후군 발생율이 높다고 했다.

축산분·뇨처리대책 심포지엄 개최

—양돈분뇨 처리 방안 중심으로—

식수원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 가뜰이나 생산과잉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축산업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이 나옴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문제확대를 최소화 하려는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화) 양돈협회가 주최하고 현대축산출판(주)가 주관한 「축산분·뇨처리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주로 양돈분뇨 처리 방안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 발표자인 환경청 신현국박사는 물의 오염이 심각함을 지적 정치적으로 항상 뒷전에 밀려있던 환경오염문제가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롭게 할 단계까지 와 있는 만큼 물의 자원을 무한제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유한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축산분뇨처리 방침을 첫째, 퇴비로 재활용이 기본방침이며, 둘째 발효후 배출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주제부터는 양돈농장에서의 분뇨처리 적용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산란중추위탁 사육 및 판매**

중추육성 전문농장

봉래농장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12-1
☎(02)511-0038, (0417)63-8402